- 종교라는 진리 -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결국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종교는 그 어떤 학문 분야보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해준다. 다만 그 답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는 종교가 독단과 배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발생시켰다.

- 종교의 구분 -

절대적 유일신교와 상대적 다신교

• 구약의 종교인 유대교, 그리스도교(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를 세계 3대 종교라 할 수 있다. 인구, 지역,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들 종교가 진리에 더 가깝다거나 더 가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규모면에서 그렇다는 것뿐이다.

• 구약과 신약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세 종교는 구분된다. 유대교는 구약을 절대시하지만 신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구약을 믿고 신약을 절대시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지위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태도다. 이슬람은 구약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신약을 절대시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유대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예수라는 인물은 여러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최종적으로 신이 보낸 인물로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남겨준 코란을 절대시한다.

• 그리스도교를 세분화하면 로마카톨릭(천주교), 프로테스탄트(개신교), 동방정교회로 구분할 수 있다. 동방정교회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 종교 { 절대적 유일신교(구약) –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 상대적 다신교(베다) – 힌두교, 불교, 티베트불교

- 절대적 유일신교 -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민족종교를 말한다. 전체 신도수로 보면 보잘것 없는 규모지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기원이 되는 종교로서 현재까지 존속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교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으로서 야훼를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메시아 사상을 따른다는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이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판단하고 분리해서 나온 종교가 그리스도교다. 성서로는 유대교 성경인 '타나크'를 중시한다.

• < 타나크 > { 토라(모세오경) :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네비임 : 예언서
  { 케투팀 : 성문서

• <참고> 유대 신화에서는 이브 이전에 릴리트라는 여성이 아담과 동시에 창조된 것으로 나온다. 릴리트는 성관계를 중심으로 한 여성 평등을 주장하다가 아담과 갈등을 겪고 결국 홍해로 가서 악마가 된다. 릴리트가 떠나고 혼자 외로워하는 아담을 위해 아담의 갈비뼈로 온순한 이브가 창조되었다. 릴리트의 이야기는 이후 바빌로니아와 메소포타미아에 전파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사라졌다.

•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 한 아이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었다고 주장한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예수라는 인물을 메시아라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유대교와 갈라진다. 구약과 신약성서를 근간으로 하고, 유일신 야훼와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믿는 종교다.
• 그리스도교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제자들의 행적에 대한 27권의 문서들을 묶은 것이다. 네 편의 복음서와 제자들인 사도의 행적이 한편, 그 밖의 사도들의 여러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의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다.

• 신약
- 복음서 :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 사도행전
- 서간서
- 예언서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속죄와 구원의 의미를 갖는다. 죄 없는 이를 희생시킴으로써 인류 전체를 속죄해주었다는 것이다.
•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신을 바로 묻지 않고 동굴 속에 보관하고 유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의 시신 역시 동굴 속에 보관되었다. 하지만 장사 치른지 사흘 만에 예수의 시신은 사라졌으며, 부활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후 예수는 올리브 산에서 승천했다.
예수의 희생과 부활은 이후 그리스도교인들의 종교적 신념의 구심점이 되었다.
• 그리스도교를 가톨릭과 개신교, 동방정교회로 구분해서 비교하면 단일 종교로서 신도가 가장 많은 종교는 이슬람이다. 중동에 포함되는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반도 그리고 러시아 일부 지역과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까지 분포되어 있다. 남성 신자를 '무슬림', 여성 신자를 '무슬리마'라고 부른다.
• 이슬람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이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절대적 창조주인 하느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언자 무함마드(마호메트)를 하느님의 사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무슬림들은 신앙고백으로 '샤하다'라고 한다.
• 이슬람의 성경인 코란에는 실제로 처형당한 인물이 예수가 아닌,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긴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일신 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를 희생시켰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 그리스도교는 신약성서까지 믿는 까닭에 6세기에 태어난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다. 반면 이슬람에서의 무함마드는 최후의 예언자이자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된다.
• 이슬람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구약의 하느님 말씀에 따라 성전에 어떤 상징물도 만들어놓지 않았다.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벽과 기둥에 기하학적 무늬가 끝없이 반복되는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만이 보인다.
• 예언자 무함마드는 570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쿠라이시족의 명문 가문인 하심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떠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메카에 정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메카는 아담과 이브가 나이 들어 정착했던 곳이라는 전설도 있다.
• 무함마드가 세속적인 생활을 버리고 메카의 교외 산속 동굴에서 오랜 수행 생활 끝에 가브

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를 통하여 알라의 계시가 전해졌다.
알라의 계시는 첫 말씀이 있던 610년부터 시작해서 무함마드가 죽은 632년까지 22년간 계속되었다.
• 무함마드가 종교적 박해가 심한 메카를 탈출하여 메디나에 도착한 날인 622년 9월 20일을 매우 중요한 날로 생각하며, 이를 '헤지라'라고 부른다.

- 상대적 다신교 -

힌두교, 불교, 티베트불교

• 상대적 다신교는 인도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아시아 지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지역의 종교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로서 '베다(Vedas)를 기원으로 한다. 베다는 구전되어 전해오던 내용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신성한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편찬한 문서다. 베다는 '지식', '지혜'를 뜻하는 말로, 신화, 종교, 철학, 제의, 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베다 > { 삼히타 / 브라마나 / 아라냐카 / 우파니샤드(베단타) : 결론부분

베다의 마지막 부분인 우파니샤드는 우주의 원리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철학서로서 베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베다의 궁극적 끝'이라는 의미에서'베단타(vedanta)'라고 부른다.
• 우파니샤드의 핵심 사상은 우주와 자아에 관한 것이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우주를 '브라흐만'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주의 궁극적 원리이자 실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물질과 정신을 포함한 이 세상 전체다. 자아는 '아트만'이다.나의 신체, 마음, 정신은 항상 변화하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러한 자아 말고, 자아의 궁극적 실체를 아트만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불멸하는 영혼 정도가 되겠다.
• 아트만이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 새로운 신체로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것을 '삼사라', 번역해서 윤회라고 한다. 윤회가 멈추는 것이 해탈이 된다.
• 불변하는 자아가 끝없이 윤회한다는 생각은 불교가 아니라 우파니샤드의 내용이다. 불교에서는 반대로 불변하는 존재로서의 자아인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교는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론(無我論)을 주장한다.
• 개인이 무한한 윤회를 끝내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하나라는 사실(범아일여사상)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범아일여의 깨달음은 깊은 명상을 통해 삼매에 들 때 가능하다.
• 힌두교는 베다철학과 인도의 민간신앙이 섞여 있는 형태를 띠는데, 창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교조나 체계를 가진 것도 아니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보인다. 다만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그 근간으로 하고 브라흐마나, 수트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등 다른 문서들이 추가되었다. 초기 베다나 우파니샤드와 차이점이 있다면,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신들이 조금 더 인간적인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 힌두교의 신 : 브라흐마(창조), 비슈누(유지), 시바(파괴)
• 현대적 관점으로 힌두교의 주신들은 허황되어 보이고,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문학의 장르처럼 보인다. 어떤 측면에서 힌두교는 베다 철학, 특히 우파니샤드의 형이상학적 심오함을 대중적으로 풀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기원전 6세기 무렵에 고타마 싯다르타에 의해 시작된 불교는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영향권 안에서 탄생한 까닭에 업, 윤회,해탈 등의 개념을 이어받았다. 다만 베다 철학의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을 거부하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삶 가운데 고통이 발생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고통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탐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부처는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담론을 중단하고, 현실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 불교의 문제의식은 고통으로부터 시작한다. 부처가 깨달은 진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 둘째, 모든 것이 덧없다. 셋째, 모든 것이 실체 없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치 삶에 대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가 그러함을 말한 것으로, 부처는 이를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무엇인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할 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으므로 고통은 가중된다.
고정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 이를 무아(無我)라고 하고, 이후 대승불교에 와서는 공(空)으로 표현된다.
•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이 변화한다면, 이 세상은 무엇인가? 부처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단순하고 우연적인 조건들이 순간적으로 모인 것뿐이라고 한다. 눈앞의 사물이나 개인의 성품이나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의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서 우연하게도 지금의 모습으로 잠시 놓이게 된 것이다. 이를 '연기'(緣起)라고 한다.
•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아와 연기를 받아들일 때, 삶의 고통은 제거되고 개인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를 부처는 명료하게 고집멸도(苦集滅道)의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한다.
고집멸도 (苦集滅道) [ㅡ짐ㅡ또]

〔불〕 불교의 근본 교리를 나타내는 말. '고'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고, '집'은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의 모임이고, '멸'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열반이고, '도'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수행임. 사제(四諦).
苦 쓸 고; 艸-총9획; [kǔ]
쓰다, 쓴맛, 씀바귀, 쓴 나물, 괴로워하다
集 모일 집; 隹-총12획; [jí]
모이다, 만나다, 모으다, 이르다, 도착하다
滅 멸망할 멸; 水-총13획; [miè]
멸망하다, 멸하다, 없어지다, 제거하다, 끄다, 불이 꺼지다
道 길 도; 辶-총13획; [dào]
길, 이치, 근원, 기능, 방법, 사상, 인의(仁義), 덕행(德行), 기예, 정령(政令), , 행정(行程), 바둑.장기에서 行馬의 길, 통하다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직시'하는 단계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미워하는 김 부장의 얼굴을 매일 보는 것,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어긋나는 것, 늙어감에 따라 병들고 아파지는 것 모두를 명료하게 바라보는 단계를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단계다.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집착'하기 때문이다. 안정된 현실을 꿈꾸고, 감각의 쾌락을 꿈꾸고, 죽고 나면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와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었음을 이해하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집착을 제거'하는 단계다. 모든 집착과 번뇌와 욕망을 멸한다면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고통도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해탈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집착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을 실천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팔정도(八正道)라는 여덟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이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등 마음을 바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해탈에 이르는 네 단계인 고집멸도를 사성제(四聖諦)라고 부른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불교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 八正道

<正見>

<正思惟>

<正語>

<正業>

<正命>

<正精進>

<正念>

<正定>

• 불교는 한때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갔지만, 9세기 이후부터는 힌두교에 밀리기 시작했고 11세기에는 이슬람의 침입과 함께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13세기 말이 되면서 불교는 인도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여러 분파로 나눠지며 티베트, 중국, 한국, ㅇ리본으로 전파되어갔다. 불교의 분파는 일반적으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그리고 금강승으로 구분한다. 그중 개인의 깊은 깨달음 강조하는 소승불교는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고, 대중들의 해탈을 고려하는 대승불교는 동북아시아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밀교적 형태를 가진 금강승은 티베트로 전파되었다. 티베트는 초기 불교의 모습과 부처의 가르침의 요체를 잘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